한신협, 채널A 개국 축하

동아미디어그룹과 전국 9개 지역대표신문 협의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표들이 지난 1일 서울 동아미디어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종합편성TV 채널A의 성공적인개국을 자축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 김순규 경남신문 회장, 이희종 강원일보 사장, 송광석 경인일보 사장, 김재호 동아일보 회장, 이창영 매일신문 사장,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 김남곤 전북일보 사장, 김대우 제주일보 사장. 〈동아일보 제공〉

최구식의원 비서 선관위 홈피 디도스 공격 커지는 의혹

좀비 PC 200대 동원… 윗선 개입 없을까

민주 "박원순 낙선 목적, 한나라 조직적 배후"

10·26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분산서비스공격(DDoS : 디도스)한 범인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의 수행비서로 드러나면서 목적과 배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목적은**=서울에서는 투표율이 낮으면 야권에 불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던 상황에서 여당 의원실 직원이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한 정황이 드러나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그 시간대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소를 확인하고 투표 후에 일터로 향하는 젊은 층은 상당수가 박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였기 때문이다.

야당 측에서는 결국 투표소를 확인하지 못해 그대로 직장에 출근한 야당 성향 지지자가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4일 "선거 당일 같은 시간에 중앙선관위와 함께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들이 겨냥한 것은 박 후보의 낙선이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배후는**=이 사건과 관련한 수행비서 K씨 등의 금품수수, 배후 존재 여부도 관심거리다. 즉, 수행비서가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는 데 최구식 의원과 그 윗선이 개입했는지가 우선 규명돼야 할 과제다.

K씨가 9급 수행비서이고 선거 전날인 25일 밤에야 공격을 의뢰한 점에 비춰 우발적인 단독 범행 가능성이 있지만, 중대한 선거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K씨와 공범 3명은 최 의원 고향인 진주 출신이다. 공범 3명은 디도스 공격을 시인했지만 K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문제는 최 의원 등의 연루 가능성. 민주당 이석현 의원 등은 "200여 대의 좀비 PC를 동원해 전문가들과 공모한 점으로 볼 때 조직적 배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나경원 후보 선거본부와 한나라당, 그 이상의 배후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최구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할 테니 수사기관도 신속히 조사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내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미 FTA 원천무효 장외투쟁'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시큰둥

의원 출판회엔 수천명 당 집회엔 고작 100명

시민들 "FTA 반대 말뿐… 진정성 의심스럽다"

민주당 광주시당의 '한미 FTA 날치기 원천무효 규탄대회'가 100명에도 못 미치는 당원들이 참석하는 등 형식적인 집회에 그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한미 FTA에 대한 광주 국회의원들의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거부하며 장외 투쟁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3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삼복서점 앞에서 '한미 FTA 날치기 원천무효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강기정, 김동철 의원을 제외한 광주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 등이 참석했으나 전체 참석 인원은 100명에도 못 미쳤다.

이날 집회를 지켜본 경찰 관계자는 "민주당 집회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긴장했으나 이날 집회 참석 인원은 후하게 봐도 100명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집회는 한미 FTA에 대한 광주 국회의원들의 입장 표명과 홍보 유인물 나눠주기 등을 거쳐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광주 국회의원들은 행사 직후, 각자 자리를 떠났으며 이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 한미 FTA 원천무효 '광주 촛불문화제'에는 김재균 의원만이 참석하는데 그쳤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날 집회가 한미 FTA에 대한 광주 국회의원들의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지역 민주당원이 19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 국회의원들이 한미 FTA에 대한 심각한 현실 인식이 있었다면 이날 집회의 참석 인원이 100명 수준에 그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광주 국회의원들이 최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당원들과 지인들의 참석을 독려, 수천명을 모았다는 점은 이날 집회가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치러졌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국회의원들이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단독처리와 이에 따른 국가 경제의 폐해에 대한 광주의 여론을 모으고 정국 현안에 대해 강력한 소신을 현장에서 나타내기 보다는 단순한 정치적'면피용 행보'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특히, 이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거부하고 장외 투쟁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의 입지마저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집회를 지켜본 시민 정모(34·서구 치평동)씨는 "구태여 이런 행사를 마련한 이유를 모르겠다. 너무 무성의하다"며 "한미 FTA를 대하는 광주 국회의원들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당원들에게 집회에 참석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날씨가 추워 참석이 저조했다"며 "다음 집회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당원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FTA 농업분야 피해대책 마련 해달라"

박준영 지사, 김황식 총리·임태희 실장에 촉구

전남도는 박준영 전남지사가 지난 2일 김황식 국무총리와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잇달아 면담하고 한미 FTA로 예상되는 농업분야 피해 대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축산업 분야가 붕괴하면 식량 위기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의 더욱 강화된 FTA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조사료 생산 국비 지원 확대와 동물복지형 축산 지원 확대, 소득보전직불금 지원기준 현실화,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특히 "한미 FTA로 수혜를 보는 산업부분의 이익을 재원으로 특별회계 형태의 기금을 조성해 농축산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관련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 기회를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자고 했다"며 "전남의 장단기적이고 효율적 건의사항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글쎄올시다

9년째 법정시한 넘긴 새해예산안

정기국회내 처리 불투명
여야 이번주 정상화 논의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여파로 열흘 넘게 파행을 빚으면서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를 추가로 열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4일 "예산안을 졸속으로 심사하고 날치기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한 데 대해 하루빨리 사과하고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15개 상임위에서 넘어온 삭감안과 증액안을 1차 심의하는데 최소한 8일 이상 걸린다"며 "2차 검토와 여야 원내대표 합의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임시국회 개회는 불가피하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당내에서도 "현실적으로 9일 처리가 어렵고 임시국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직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물밑조정 과정만 거치고 있지만 정기국회 내에 마치겠다는 희망의 불씨를 끄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면서 "정 안되면 단독처리라도 해야하는데 큰 일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김 원내대표는 금주 초 접촉을 갖고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정상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흥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쇼핑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평내호평역앞):070)8829-9903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옆):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구)도청옆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